

치 사

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퍼지도록 불교음악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음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, 제3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오늘 이 자리는 ‘제3회 불교음악상 시상식’과 더불어 ‘2016 신작찬불가 공모전 시상식’이 동시에 진행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.

불교음악의 발전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많은 사부대중에게 음악이라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불교음악인들의 결실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

음악은 우리 마음의 대지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며,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,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위안과 평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.

특히 불교음악은 다양한 불교문화예술 가운데 신심이 음악이라는 형태로 정형화되어 각종 의식 속에서 표출된 지극한 공양이라 할 수 있으며, 불교음악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등불을 밝혀 어려운 고난을 헤쳐 나가는데 이정표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불교음악인 여러분의 보이지 않

는 땀과 노력이 있었고, 오늘 이 시상식은 그 결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.

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수상자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, 불교음악이 성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자 않는 모든 불교음악인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
범음의 향기가 가득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2560년 12월 7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